

□ 202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해설 - 인문계열 □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우수자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인문사회계열	문항번호	■ 1번 ■ 2번
출제 범위	핵심개념 및 용어	시민 참여, 정치 참여, 사회적 자본, 정보화, 대중 매체, 언론의 순기능과 역기능, 소셜미디어, 사회적 쟁점, SNS	
예상 소요 시간	120분		

2. 문항 및 자료

- 답안 작성 유의사항
- 1. 제목은 쓰지 마시오.
- 2. 제시된 분량을 지키시오.
- 3.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마시오.
- 4. 각 문항에 제시된 조건을 고려하여 쓰시오.
- 5. 서론과 결론은 쓰지 말고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하시오.
- 6. 수험번호, 성명 등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답란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드러내지 마시오.

[논제]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확산이 사회적 쟁점에 대한 참여 확대 또는 합의 도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 상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문항 1] <다음> 중 하나의 주장을 택한 후, <조건>에 따라 논하시오. (500자±50자, 40점)

< 다 음 >

주장 1 : SNS의 확산은 참여 확대 또는 합의 도출에 기여한다.	주장 2 : SNS의 확산은 참여 확대 또는 합의 도출을 저해한다.
--	--

- < 조 건 >
1. 제시문 (마)의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하여 자신이 택한 주장에 가장 잘 부합하는 국가를 하나 선택하고, 그 국가를 선택한 이유를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할 것.
 2. 제시문 (마)의 <자료 3>과 제시문 (가)를 활용하여 선택한 국가의 특징을 분석할 것.
 3.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문항 2]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문항 1]에서 택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이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한 후, 이를 재반박하시오. (1,000자±100자, 60점)

< 조 건 >

1. 제시문 (나)~(라) 가운데 두 개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것.
2. 반론의 논거 역시 제시문 (나)~(라) 중 두 개를 활용하여 제시할 것.
3. 재반박에서는 [문항 1]에서 선택한 국가의 특징을 고려하여 자신의 주장을 옹호할 것.
4.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 제시문 >

(가) 정치 과정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근대 이전에는 정치 과정이 소수 지배자들의 지시와 통제를 통한 통치 방식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근대 이후에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점차 증가하면서 정치 과정에서 그 역할이 중요해졌다. 시민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정치적 합의가 잘 지켜질 수 있다는 신뢰가 강할수록, 그리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공식·비공식적 모임을 통해 지식 공유를 촉진하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강할수록 정치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한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개인이 맺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관계성과 연결성이 강조된다.

퍼트남(R. Putnam)은 협력적 행동을 통해 정치 과정의 참여와 효율을 증진시키는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와 네트워크의 일체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고 하였다.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는 그 적용 범위에 따라 가족 및 친구 등 자신과 가까운 지인에 대한 '특정화된 신뢰'와 낯선 사람에 대한 '일반화된 신뢰'로 세분될 수 있다. 특정화된 신뢰는 가까운 지인들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폐쇄적인 특성을 지닌 반면, 일반화된 신뢰는 낯선 이들에 대한 신뢰로서 개방적인 특성을 지닌다. 네트워크도 신뢰와 더불어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 네트워크는 사회적 관계의 성격에 따라 '결속형 네트워크'와 '연결형 네트워크'로 구분될 수 있다. 결속형 네트워크는 연줄과 인맥 등으로 맺어진 관계로, 동질적 속성을 지닌 개인들 간의 결속력이 강해서 본질적으로 배타적이고 내부지향적이다. 반면, 구성원들 간의 결속력이 약할지라도 공공선을 지향하는 사회단체나 자선단체와 같은 연결형 네트워크는 다양한 의견 및 태도에 대해 포용적이고 외부지향적인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결속형 네트워크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는 반면, 연결형 네트워크는 참여와 연대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활용

(나) 시사주간지 <타임>은 평범한 시민들이 유튜브와 같은 공유 사이트를 통해 아무런 대가 없이 정보를 제공하여 세상을 변화시켰다며 2006년 올해의 인물로 '당신'을 뜻하는 'YOU'를 선정했다. 유튜브와 같은 SNS의 발달에 따라 정치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획득하고 사이버공동체와 같은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회적 쟁점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는 오프라인과 구분되는, SNS가 가진 네트워크의 성격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SNS는 지리적 경계를 뛰어넘어 더욱 폭넓고 다양한 대상과 일상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하여 수많은 정보와 의견이 교환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다. 또한 SNS 상에서는 상호작용이 채팅과 같은 일대일 방식으로도, 콘텐츠 게시와 같은 일대다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모든 사람이 함께 접속하는 동시적 상호작용과 함께, 시차를 두고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비동시적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주제에 대하여 장기간 의견을 나눌 수도 있다.

SNS를 통해 여러 사람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결국 비슷한 생각이나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결속력을 강화할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패리저(E. Pariser)는 그의 저서 『생각 조정자들』에서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는 물론 정치 성향까지 분석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개인의 생각이 제한되는 현상을 '필터 버블(filter bubble)'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필터 버블은 검색 엔진

과 소셜 미디어와 같은 디지털 정보중개자의 알고리즘 특성과 관련된다. 구글의 검색 기능, 페이스북의 게시글과 친구 추천 기능, 유튜브의 추천 영상 제공 등은 이러한 알고리즘의 결과물이다.

고등학교 『사회』, 『사회·문화』 활용

(다) 영국의 주요 신문인 <가디언>의 역사는 1819년 8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테일러(J. Taylor) 기사는 맨체스터의 성 피터 광장에 운집한 6만 명의 군중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날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하여 투표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군대가 출동하여 집회를 해산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무자비한 폭력으로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위대 속에 있었던 테일러 기사는 런던 시민들에게 이 학살의 진상을 알리고자 서둘러 야간 운송 편으로 기사를 보냈고, 다음날 일간지를 통해 전국에 알려졌다. 이는 투표권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테일러는 이 경험으로 <가디언>의 전신인 <맨체스터 가디언> 신문을 창간하였고, 이후 1832년 영국에서 1차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국에서 신문은 조선이 망해가는 격동의 시기에 등장하였다. 1883년 <한성순보>가 처음 창간되었지만 실제로는 관보에 가까운 한문신문으로 갑신정변 직후에 폐간되었다. 1896년에는 최초의 한글 일간지인 <독립신문>이 창간되었고, 이후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과 같은 민간 신문이 창간되었다. 이들 애국 계몽을 표방한 민간지들은 제국주의 열강의 조선 침략 현실을 폭로하는 데 앞장섰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을 때 장지연은 '이날에 목 놓아 통곡하노라'라는 제목의 논설을 <황성신문>에 게재하였고, 이로 인해 <황성신문>은 발행이 중단되었으며 장지연은 투옥되었다. 신채호도 <황성신문>의 논설 기자로 활동하며 대구에서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을 제일 먼저 소개하였고, 사람들에게 널리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대한매일신보>는 1910년까지 항일언론의 선봉에 섰던 신문으로 신채호는 여기서도 주필을 맡았다. 이 두 신문을 중심으로 국채보상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그 후 항일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고등학교 『세계사』, 『한국사』 활용

(라) 텔레비전이 보급된 이후 오랫동안 미국인은 세 곳의 거대 방송국과 세 곳의 주요 신문을 통해 뉴스를 얻었다. 그 언론 매체 중 어느 곳도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색채를 뚜렷이 드러내지 않았고 정보를 편향되게 전달하지도 않았다. 대부분의 미국인이 거의 동일한 출처에서 정보를 얻었던 셈이다. 하지만 한 때 큰 시장을 형성했던 매체들이 최근 들어 쇠락한 반면, 뉴스를 전문으로 다루는 웹사이트와 케이블 텔레비전 등은 부상했다. 이에 따라 미국인들은 자신이 지닌 견해에 따라 정보의 출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가령 케이블 텔레비전에는 477개의 채널이 있음에도 자신의 현재 관심사와 생각에 따라 채널을 선택하며, 달갑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는 아예 담을 쌓는다. 그 결과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더욱 강화된다.

이것은 유권자뿐 아니라 정치가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요즘 대부분의 의원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데, 민주당원이건 공화당원이건 상관없이 모두 자신의 견해에 부합하는 뉴스를 게시하고 다른 견해를 올리는 사람을 친구 명단에서 지워버린다. 또한 시시때때로 페이스북을 점검하여 자신의 견해에 동조하는 온라인 뉴스를 확인하고, 그 뉴스 전달자를 친구로 추가한다. 결국 자신과 견해를 공유하는 친구들만 늘어나고, 자신에게는 여과된 정보만 전달된다. 그 결과 정치가들도 다른 사람들이 상대 정당을 지지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유권자들도 내가 선택한 의원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들과는 타협하지 않기를 바라게 된다.

고등학교 『사회』, 『법과 정치』 활용

(마) 다음의 자료는 '복지 예산 감축 또는 확대' 쟁점에 대하여 A, B, C, D 네 국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설문조사는 SNS가 확산되기 이전과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자료 1>은 각각의 시점에서 해당 쟁점에 대한 사회적 참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네 가지 활동(기사 검색, 주변 사람과의 대화, 청원 서명, 집회 참여) 중 몇 가지 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다. <자료 2>는 이 쟁점

에 대한 입장을 '0(매우 감축)부터 10(매우 확대)'까지의 11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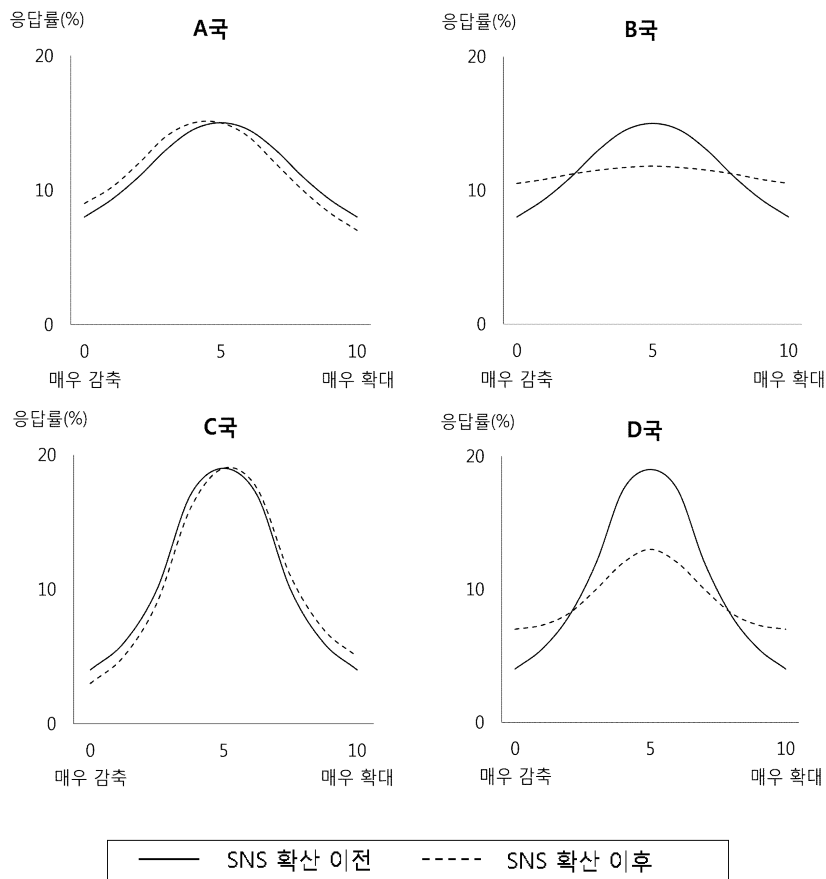
<자료 1> 국가별 사회적 참여도에 대한 응답 결과

(단위: 개)

국가	SNS 확산 이전	SNS 확산 이후
A국	2.5	2.5
B국	2.4	2.4
C국	0.8	2.2
D국	0.6	2.1

* 표 안의 값은 응답자들의 평균값임.

<자료 2> 국가별 복지 예산 입장에 대한 응답 결과



* 그래프는 시각적 편의상 곡선으로 처리하였음.

<자료 3>은 SNS가 확산되기 직전 시점에 측정한 네 국가의 사회적 자본 수준을 나타낸 설문조사 결과다. 설문문항은 다음과 같다. (1) "동문회와 같은 동질적 모임에 몇 개 가입해 있습니까?", (2) "환경단체와 같은 공익적 모임에 몇 개 가입해 있습니까?", (3) "가족과 친지·친구 등 나와 가까운 지인들은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1: 그렇다, 0: 아니다), (4) "낯선 사람을 포함한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1: 그렇다, 0: 아니다)

<자료 3> 국가별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응답 결과

국가	(1) 동질적 모임 가입	(2) 공익적 모임 가입	(3) 지인에 대한 신뢰	(4) 낯선 이에 대한 신뢰
A국	3.3개	3.4개	0.87	0.85
B국	3.5개	0.7개	0.83	0.32
C국	1.6개	3.2개	0.45	0.81
D국	1.2개	0.7개	0.31	0.28

* 표 안의 값은 응답자들의 평균값임.

※ <자료 1>~<자료 3>에서 제시되지 않은 다른 모든 사항은, 네 국가가 모든 시점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고등학교 『사회』, 『법과 정치』 활용

3. 출제 의도

이 문항은 논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시문을 활용하여 논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며,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수험생은 논제를 파악하고 여러 통계 자료와 글 자료 중 필요한 자료를 선택한 후 다른 입장도 고려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해야 한다.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누구든지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험생에게 익숙한 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주제를 제공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전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논제는 고등학교 『사회』,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법과 정치』와 같은 과목에서 많이 다룬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확산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다.

통계 자료는 SNS의 확산이 사회 참여와 합의 도출에 미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자료와 사회적 자본의 성격에 따라 SNS 영향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글 자료도 제시하여 지식 이해보다 자료 분석 및 해석 능력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SNS 확산의 긍정적 효과 혹은 부정적 효과에 대한 논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SNS의 네트워크와 알고리즘 특성, 미디어에 의한 영국의 투표권 운동의 확산과 구한말 국채보상운동의 확산 사례, 정보 선택권의 확대에 따른 정치적 편향 강화 지문이 제시됨으로써 수험생이 글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거나 반론을 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4.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 국어 I ■ 국어 II ■ 화법과 작문 ■ 독서와 문법 □ 문학 □ 고전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중 【선택 교육과정】

■ 생활과 윤리 □ 윤리와 사상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중 【선택 교육과정】의 일반과목

■ 사회 □ 한국지리 □ 세계지리 □ 한국사 □ 세계사 □ 동아시아사

□ 경제 ■ 법과 정치 ■ 사회·문화

1.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국어 I
(가) ~ (마)	성취기준 1	(5) 여러 가지 독서 방법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독서 방법을 적용하여 글을 읽는다.
	성취기준 2	(6) 독서의 목적과 상황, 독자의 흥미나 가치관 등을 고려하여 글을 스스로 선택하여 읽는 태도를 기른다.
	성취기준 3	(8) 다양한 매체에서 얻은 정보를 작문 상황에 맞게 조직하여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춘 글을 쓴다.
	성취기준 4	(9) 여러 가지 표현 기법과 적절한 문체를 사용하여 글을 쓰고 자신이 쓴 글을 점검하며 고쳐 쓴다.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국어 II
(가) ~ (마)	성취기준 1	(5) 문제 해결적 사고 과정으로서 독서의 특성을 이해하며 다양한 유형의 글을 읽는다.
	성취기준 2	(6) 다양한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며 읽는다.
	성취기준 3	(7) 핵심적인 정보를 선별하고 작문 맥락에 맞게 정보를 조직하여 설명하는 글을 쓴다.
	성취기준 4	(8) 작문 맥락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장하는 글을 쓴다.

관련
성취기준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화법과 작문
(가) ~ (마)	성취기준 1	(1) 화법과 작문에 필요한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소통 행위를 성찰한다.
	성취기준 2	(2)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 화법과 작문의 성격과 기능을 이해한다.
	성취기준 3	(13)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글을 쓴다.
	성취기준 4	(16) 설득하는 담화나 글의 구조와 내용 조직의 원리를 이해하고 청자와 독자를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한다.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독서와 문법
(가) ~ (마)	성취기준 1	(3)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탐구하고 이해한다.
	성취기준 2	(15) 글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글의 담화적 특성을 판단하며 읽는 능력을 기른다.
	성취기준 3	(16) 글의 기본 구조와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 전개 과정의 특징을 파악하며 읽는다.
	성취기준 4	(17) 글의 구성단위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성취기준 5	(19) 글의 내용이나 자료, 관점 등에 나타난 필자의 생각을 비판하며 읽는다.
	성취기준 6	(21) 글의 화제나 주제, 필자의 관점 등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발견한다.

2.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사회
(나), (라), (마)	성취기준 1	(1) 사회를 바라보는 창 (㉞) 세상 이해 개인이 살아가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다양한 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동기(원인)와 결과를 고려하여 사회현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기른다.
	성취기준 2	(2) 공정성과 삶의 질 (㉞) 개인과 공동체 개인 and 공동체 간의 관계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개인 and 공동체 간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을 탐색한다. 또한 구체적 사례의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차별과 소외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평가한다.
	성취기준 3	(4) 환경 변화와 인간 (㉞) 과학 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인간이 삶의 영역을 어떻게 확장해 왔는지를 이해한다. 또한 과학 기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한 일상 공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인간의 선택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법과 정치
(가), (라), (마)	성취기준 1	(2)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우리나라와 외국 여러 나라의 정부 형태, 선거 제도, 정당 제도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치제도의 특성을 분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민주 정치의 형태와 제도의 방향에 대해서 탐색해 보도록 한다. 또한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정치 참여의 태도를 모색한다. (㉞) 현대 민주 정치에서 국민의 정치 참여가 갖는 의의를 탐색하고, 다양한 정치 참여의 유형을 실제 사례와 관련지어 파악한다.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사회·문화
(가), (나)	성취기준 1	(5) 일상생활과 사회 제도 가족, 교육, 대중 매체, 종교 등의 사회 제도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러한 사회 제도들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사회적 기능들을 파악한다. 더불어 이러한 사회 제도들과 관련된 사회적 쟁점이나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 (㉞) 대중 매체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대중 매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진다.
	성취기준 2	(6)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의 역동적인 측면을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회 변동을 이해하려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한다. 그리고 사회 변동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기 위하여 근대화 and 산업화 과정을 살펴보고, 현대 사회의 중요한 변화 양상인 세계화 and 정보화를 이해한다. 아울러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방안에 관해서 알아본다. (㉞) 근대 사회의 형성 배경을 알아보고, 근대화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적 시각을 살펴본다. (㉞) 정보 사회의 형성 과정과 특징을 이해하고, 정보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책을 탐색한다.

관련 제시문	성취기준	과목명: 생활과 윤리
(가), (나)	성취기준 1	(2) 사회 윤리와 직업 윤리 (나) 사회 정의와 정의로운 사회 사회 제도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서 사회 정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사회 정의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이를 위해 사회 정의의 의미와 종류, 사회 정의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조사·분석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탐구한다.
	성취기준 2	(3) 과학 기술·환경·정보 윤리 (바) 정보 사회와 윤리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에 끼친 영향 및 그에 수반되는 윤리적 문제(저작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 사이버 폭력, 게임·인터넷 중독 등)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이를 위해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에 끼치는 순기능과 역기능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조사·분석하고, 정보 사회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 윤리에 대해 탐구한다.

2) 자료 출처

가) 교과서 내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참고 쪽수	관련 제시문	재구성 여부
국어 I	박영목 외	천재교육	2014	206-231	공통	○
국어 I	윤여탁 외	미래엔	2014	222-243	공통	○
국어 II	김종철 외	천재교육	2014	124-133, 208-217	공통	○
국어 II	윤여탁 외	미래엔	2014	226-235	공통	○
국어 II	이삼형 외	지학사	2014	152	(마)	○
화법과 작문	박영목 외	천재교육	2014	80-85, 100-133	공통	○
화법과 작문	박영민 외	비상교육	201	88-93, 130-135, 210-211	공통	○
화법과 작문	이삼형 외	지학사	2014	106-129, 146-158, 162-165	공통	○
화법과 작문	박영목 외	천재교육	2014	50-59, 64-66	공통	○
독서와 문법	박영목 외	천재교육	2014	156-157	(가), (마)	○
사회	신형민 외	비상교육	2014	58, 130, 162, 200, 220, 222	(나), (마)	○
사회	이동환 외	천재교육	2014	58, 162	논제, (마), (라)	○
법과 정치	김왕근 외	천재교육	2014	16, 73, 79-80	논제, (나), (라)	○
법과 정치	박영경 외	비상교육	2015	68, 71	(가), (나), (라)	○
법과 정치	손병로 외	금성출판사	2014	72, 74	(나), (라)	○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참고 쪽수	관련 제시문	재구성 여부
사회·문화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15	68	(가)	○
사회·문화	이진석 외	지학사	2014	197-201	(나)~(다)	○
한국사	한철호 외	미래엔	2014	225	(다)	○
한국사	주진오 외	천재교육	2014	215, 223, 228	(다)	○
세계사	최상훈 외	교학사	2014	196	(다)	○
세계사	김형종 외	금성출판사	2014	221	(다)	○
세계사	조한욱 외	비상교육	2014	193	(다)	○
세계사	김덕수 외	천재교육	2014	315	(라)	○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6	202	(가), (마)	○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육	2014	166-167, 146-147, 177	논제, (가), (마)	○

나) 교과서 외 자료 등을 활용한 경우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참고 쪽수	관련 제시문	재구성 여부
대변동(위기, 변화, 선택)	제레드 다이아몬드	김영사	2019	432-434, 439	(라)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참고 쪽수	관련 제시문	재구성 여부
사회	신형민 외	비상교육	2014	222	(나), (라)	○
사회	이동환 외	천재교육	2014	162	논제, (마), (라)	○
법과 정치	김왕근 외	천재교육	2014	16	논제, (나), (라), (마)	○
법과 정치	손병로 외	금성출판사	2014	74	논제, (나), (라), (마)	○

5. 문항 해설

이 문항은 데이터 자료를 정확히 이해하고, 제시된 글의 핵심을 파악하여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논제는 'SNS의 확산이 사회적 쟁점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적 참여 확대 혹은 합의 도출에 기여하는가'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두 주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다. 분석 및 논거를 위한 제시문으로는 표와 그림으로 표현된 통계 자료[제시문 (마)]와 사회적 자본에 관한 것[제시문 (가)], SNS의 일반적 특징에 관한 것[제시문 (나)],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이 정보 확산과 사회적 관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 2개[제시문 (다)와 (라)] 등 전체 5개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 문항은 공통의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을 2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여론조

사와 관련된 통계 자료에 대한 정확한 해석능력, 그리고 설명 중심의 제시문과 연계하여 통계 자료를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도록 구성하였고, 두 번째 문항에서는 제시문의 핵심 요지에 대한 파악과 그것에 근거한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서술 능력을 평가하도록 구성하였다. 제시문에 활용된 주요 관련 개념과 지식은 『사회』, 『법과 정치』,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세계사』, 『한국사』 등 여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수험생들에게 매우 익숙한 것을 취하였다. 본 문항은 고교 여러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제시된 자료에 대한 분석과 비교 능력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을 주장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시문 (가)는 근대 이후 정치과정에서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사회적 참여의 확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회적 자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회구성원간의 신뢰와 네트워크의 일체를 의미하는 '사회적 자본'은 신뢰의 측면에서는 적용범위에 따라서 지인 중심의 특정화된 신뢰와 낯선 사람을 포괄하는 일반화된 신뢰로 구분할 수 있고, 또 네트워크의 측면에서도 사회적 관계의 성격에 따라 결속형 네트워크와 연결형 네트워크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제시문은 한 사회가 신뢰와 네트워크의 측면에서 각기 다양한 사회적 자본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의 성격도 포용적이고 외부지향적인 것과 배타적이고 내부지향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 본 제시문은 한 국가에서 SNS의 확산의 효과가 사회참여 혹은 사회적인 합의도출에 기여하는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국가의 사회적 자본의 상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제시문 (나)는 SNS의 성격과 특징에 기반하여 그것의 사회적 역할이 상반되는 결과를 낼 수 있음을 설명한다. 즉 SNS를 통하여 정보를 쉽게 획득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소통을 확산시키고, 사회적인 관계도 확대시킬 수 있다. 하지만 SNS 고유의 알고리즘에 의해 개인의 관심과 정치적 성향까지 분석하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필터버블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본 제시문은 SNS의 확산이 사회적 쟁점을 둘러싼 시민의 사회적 참여확대 혹은 합의 도출에 기여하는가의 논제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의 두 측면에서 모두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제시문 (다)는 영국의 <가디언>의 역사와 조선 말기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등을 통해 당시 새롭게 출현하기 시작한 신문이라는 미디어가 여론 및 정보를 확산시켜 시민들의 사회적 참여를 추동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제시문은 SNS의 확산으로 사람들의 사회적 참여가 확대됨을 지지하는 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제시문 (라)는 SNS의 출현으로 사람들의 정보의 선택에 있어서 편향성이 발생하고, 인적 연결망도 오히려 자기의 견해에 동조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협소해지는 현상을 미국의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 SNS가 확산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에 부합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자신과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 제시문은 SNS의 확산으로 사회적 쟁점에 대한 사회적 입장이 분열하는 논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

제시문 (마)는 주어진 자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응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특히, 논제와 관련하여 각기 다른 측면에서 조사한 통계자료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호 비교하여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통계 결과를 사회 해석방식과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각각 SNS 확산 전후 시기의 국가별 사회참여도(<자료 1>)와 복지예산에 관한 국가별 여론조사 결과(<자료 2>)를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문 (가)와 연계하여 특정 국가의 사회적 자본의 특징을 해석할 수 있도록 <자료 3>을 제시하였다.

6. 채점 기준

[문항 1] 채점기준

평가항목	내용	배점				
제시문 (마)의 <자료 1>, <자료 2> 해석	<p>■ <자료 1> 해석</p> <p>▷ C, D국의 경우 SNS 확산으로 참여가 확대된 반면, A, B국은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SNS 확산 이후 사회적 참여도가 증가한 경우, SNS 확산이 참여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p> <p>■ <자료 2> 해석</p> <p>▷ B, D국의 경우 SNS 확산이 합의 도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반면, A, C국의 경우 그러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음 (그래프에서 양 극단의 응답률 증가를 입장 차의 확대를 의미하므로, SNS 확산이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음)</p>					
국가 선택에 대한 논증	<p>■ 자신이 취한 입장을 가장 잘 뒷받침하는 국가의 선택</p> <p>▷ 주장 1 (SNS 확산이 참여 확대 또는 합의 도출에 기여): C국</p> <p>▷ 주장 2 (SNS 확산이 참여 확대 또는 합의 도출을 저해): B국</p> <p>■ <자료 1>과 <자료 2>의 해석에 기반한 B국 혹은 C국 선택의 논리</p> <table border="1" data-bbox="277 1043 1307 1317"> <thead> <tr> <th data-bbox="277 1043 804 1099">주장 1: C국 선택의 논리</th> <th data-bbox="804 1043 1307 1099">주장 2: B국 선택의 논리</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77 1099 804 1317"> 답안 예시: - <자료 1>의 해석 결과, SNS 확산이 사회적 참여도를 높임 - <자료 2>의 해석 결과, SNS 확산이 합의 도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td> <td data-bbox="804 1099 1307 1317"> 답안 예시: - <자료 1>의 해석 결과, SNS 확산이 사회적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자료 2>의 해석 결과, SNS 확산이 의견 대립을 심화시킴 </td> </tr> </tbody> </table>	주장 1: C국 선택의 논리	주장 2: B국 선택의 논리	답안 예시: - <자료 1>의 해석 결과, SNS 확산이 사회적 참여도를 높임 - <자료 2>의 해석 결과, SNS 확산이 합의 도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답안 예시: - <자료 1>의 해석 결과, SNS 확산이 사회적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자료 2>의 해석 결과, SNS 확산이 의견 대립을 심화시킴	40점
주장 1: C국 선택의 논리	주장 2: B국 선택의 논리					
답안 예시: - <자료 1>의 해석 결과, SNS 확산이 사회적 참여도를 높임 - <자료 2>의 해석 결과, SNS 확산이 합의 도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답안 예시: - <자료 1>의 해석 결과, SNS 확산이 사회적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자료 2>의 해석 결과, SNS 확산이 의견 대립을 심화시킴					
선택한 국가의 특징	<p>■ 선택한 국가의 특징 서술</p> <table border="1" data-bbox="277 1373 1307 1686"> <thead> <tr> <th data-bbox="277 1373 804 1429">주장 1: C국의 특징</th> <th data-bbox="804 1373 1307 1429">주장 2: B국의 특징</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77 1429 804 1686"> - 결속형 네트워크는 낮고 연결형 네트워크는 높음 - 특정화된 신뢰는 낮지만 일반화된 신뢰는 높음 - 만남의 성격이 개방적, 포용적, 외부지향적이고 다양하고, 낯선 이를 신뢰하는 개방적 성격을 가짐 </td> <td data-bbox="804 1429 1307 1686"> - 결속형 네트워크는 높고 연결형 네트워크는 낮음 - 특정화된 신뢰는 높지만 일반화된 신뢰는 낮음 - 만남의 성격이 배타적, 폐쇄적, 내부지향적, 동질적이고, 가까운 사람들만 신뢰하는 폐쇄적 성격을 가짐 </td> </tr> </tbody> </table>	주장 1: C국의 특징	주장 2: B국의 특징	- 결속형 네트워크는 낮고 연결형 네트워크는 높음 - 특정화된 신뢰는 낮지만 일반화된 신뢰는 높음 - 만남의 성격이 개방적, 포용적, 외부지향적이고 다양하고, 낯선 이를 신뢰하는 개방적 성격을 가짐	- 결속형 네트워크는 높고 연결형 네트워크는 낮음 - 특정화된 신뢰는 높지만 일반화된 신뢰는 낮음 - 만남의 성격이 배타적, 폐쇄적, 내부지향적, 동질적이고, 가까운 사람들만 신뢰하는 폐쇄적 성격을 가짐	
주장 1: C국의 특징	주장 2: B국의 특징					
- 결속형 네트워크는 낮고 연결형 네트워크는 높음 - 특정화된 신뢰는 낮지만 일반화된 신뢰는 높음 - 만남의 성격이 개방적, 포용적, 외부지향적이고 다양하고, 낯선 이를 신뢰하는 개방적 성격을 가짐	- 결속형 네트워크는 높고 연결형 네트워크는 낮음 - 특정화된 신뢰는 높지만 일반화된 신뢰는 낮음 - 만남의 성격이 배타적, 폐쇄적, 내부지향적, 동질적이고, 가까운 사람들만 신뢰하는 폐쇄적 성격을 가짐					
<p>점수</p>		<p>40점</p>				

[문항 2] 채점기준

평가항목	내용		배점
제시문(나)~(라)를 활용한 선택의 정당화	■ 제시문 (나)~(라) 해석에 기반한 주장 선택의 논리		60점
	주장 1 : 선택의 정당화	주장 2 : 선택의 정당화	
(나)~(라)를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에 대한 반론	■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론		
	주장 1에 대한 반론의 논리	주장 2에 대한 반론의 논리	
재반박	■ 선택한 국가의 특징을 고려한 재반박		
	주장 1을 위한 재반박의 논리	주장 2를 위한 재반박의 논리	
글의 논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문>에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논거를 심도 있게 서술함 ▪ 글 전체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설득력이 있음 		
	점수		60점

감점 요소

[형식 요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 항목별 5점 이내 감점(-)

- 쓸데없는 서론 혹은 결론을 부연함
-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원래의 완전한 문장 형태를 유지한 채 그대로 옮겨 적음
-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오류,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어휘나 문장 등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심각함

[분량] 기준 분량을 어긴 경우(미달 또는 초과) 아래의 표에 따라 점수 조정

1번	25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	(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
	250자 - 349자	10점 감점(-)
	350자 - 449자	5점 감점(-)
	450자 - 550자	감점 없음
	550자 초과	5점 감점(-)
2번	500자 미만 (결시 아닌 백지 포함)	(답안 내용에 관계없이) 0점 부여
	500자 - 699자	10점 감점(-)
	700자 - 899자	5점 감점(-)
	900자 - 1,100자	감점 없음
	1,100자 초과	5점 감점(-)

7. 예시 답안

'주장 1'을 선택한 경우

■ [문항 1] 예시답안 (공백 포함 500자±50자)

SNS 확산이 참여 확대 또는 합의 도출에 기여한다는 주장 1을 선택한다. 이에 가장 잘 부합하는 국가는 C국이다. 제시문 <마>의 <자료1>을 보면 C, D국은 SNS 확산이 참여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반면, A, B국은 그러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제시문 <마>의 <자료2>를 보면 양 극단의 응답률이 높은 경우 의견이 분열되어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SNS 확산 이후에 B, D국은 사회적 분열이 심화된 반면, A, C국은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결과, 합의 도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 없이, 참여 확대라는 긍정적 영향만을 보인 C국이 주장 1에 가장 잘 부합한다. 제시문 <가>에 기반하여 제시문 <마>의 <자료3>을 보면, C국은 결속형 네트워크가 낮고 연결형 네트워크가 높기 때문에 배타적이고 내부지향적이기보다는 포용적이고 외부지향적인 특징을 지닌다. 신뢰의 측면에서는 특정화된 신뢰가 낮고 일반화된 신뢰는 높기 때문에 폐쇄적이기보다는 개방적인 특징을 지닌다.

(원고지 기준 492자)

■ [문항 2] 예시답안 (공백 포함 1,000자±50자)

SNS의 확산은 사회적 쟁점에 대한 참여 확대 또는 합의 도출에 기여한다. SNS는 지리적 경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사람들은 쟁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알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접할 수 있다. 채팅이나 콘텐츠 게시와 같은 SNS의 의견 교환 방식으로 정보가 쉽고 빠르게 교환될 뿐 아니라 그 교환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 이처럼 지속적이고 신속한 정보 교환이 가능한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시민들의 참여도는 높아지게 된다.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국채보상운동이나 맨체스터에서 시작된 투표권 운동은 네트워크 형성이 참여 확대에 기여한 좋은 사례다.

물론 SNS의 확산이 사람들에게 편향된 의견을 심어줌으로써 합의 도출을 저해한다는 반론도 있다. 유튜브의 추천 영상 제공이나 페이스북의 친구 추천 기능과 같은 알고리즘은 SNS가 지닌 정보중개자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기능으로 자신의 취향에 맞게 제공된 정보만 장기간 접촉하게 됨으로써 개인의 생각이 제한되는 필터 버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그 결과 기존의 입장이 굳어지고 동질적인 사람들과 결속이 강화되어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갈등이 커진다. 이 경우 SNS가 발달한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이 편협해짐으로써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SNS의 확산이 반드시 이런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가령 C국처럼 SNS가 확산되어도 쟁점에 대한 입장이 극단으로 쏠리지 않은 채 사회적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 C국은 사회 내의 낮은 선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높고, 시민들이 공공선을 추구하는 단체에 많이 가입되어 있다. 사회적 자본에서 일반화된 신뢰가 높고, 외부지향적인 연결형 단체의 참여가 높은 나라에서는 SNS의 확산이 편향을 강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적 자본을 늘리도록 노력한다면 SNS가 지닌 부정적 특성은 충분히 제어될 수 있다.

(원고지 기준 1,013자)

'주장 2'를 선택한 경우

■ [문항 1] 예시답안 (공백 포함 500자±50자)

주장 2(SNS 확산이 참여 확대 또는 합의 도출을 저해한다)를 택하며, 이에 가장 잘 부합하는 국가는 B국이다. 제시문 (마)의 <자료 1>에서 A, B국은 SNS가 확산된 이후 사회적 참여도에 변화가 없는 반면, C, D국은 증가하였다. 제시문 (마)의 <자료 2>는 양 극단의 응답률이 높을수록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B, D국의 경우는 SNS 확산 이후 합의 도출이 어려워진 반면, A, C국의 경우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이를 종합할 때, SNS 확산이 참여 확대를 가져오지 못한 채 합의 도출에 부정적 영향만을 끼친 B국이 주장 2에 가장 부합하는 국가이다. B국의 특징은 제시문 (마)의 <자료 3>의 내용처럼, 결속형 네트워크는 높은 반면 연결형 네트워크는 낮다. 또한 가까운 지인에 대한 신뢰는 높지만 일반적인 타인에 대한 신뢰는 낮다. 제시문 (가)에 따르면 이러한 B국은 만남의 성격이 배타적이고 내부지향적이며, 자신과 가까운 사람만을 신뢰하는 폐쇄적인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다.

(원고지 기준 490자)

■ [문항 2] 예시답안 (공백 포함 1,000자±50자)

주장 2를 지지한다. SNS 확산이 합의 도출을 저해하는 이유는 SNS 고유의 알고리즘 특성과 이용자의 편향적 정보 선택 때문이다. 먼저 SNS의 알고리즘은 개인의 성향에 맞춘 특정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편향된 생각에 갇히게 만든다. 그 결과 SNS를 매개로 한 사회적 관계도 이미 정해진 자신의 성향과 유사하게 형성된다. 또한 미디어의 다양화에 따라 이용자가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다양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비교하여 수용하기보다 점점 자신의 견해에 부합하는 것을 선택하고, 인간관계 역시 자신의 입장에 동조하는 사람들로 형성된다. 그 결과 인간의 인식은 협소하고 편향적이 되며, 사회적 관계 역시 폐쇄적이고 동질적이 되기 쉽다. SNS가 발달한 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이 편협해짐으로써 사회적 합의가 저해되기도 한다. 따라서 SNS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SNS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SNS의 네트워크 기능과 정보 확산 효과로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 먼저 SNS는 시간과 공간, 사회적 계층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대상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대·심화시킴으로써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SNS의 확산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회적 쟁점에 대한 참여의 가능성을 높인다.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국채보상운동이나 맨체스터에서 시작된 투표권 운동이 그러한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SNS의 확산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성격의 사회적 자본이 전제되어야 한다.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사회적 자본을 지닌 B국은 SNS의 확대로 사회적 여론이 분열되고 갈등이 심화됨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문제는 이러한 B국과 같은 국가가 다수이고 한 사회의 사회적 자본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SNS의 확산은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

(원고지 기준 996자)